



민주당 정책통... 차기 당권주자

국회의원 김효석(61) 장성 출신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현재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해박한 지식과 원만한 성격이 주목받으면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있다.



전략적 센스 탁월한 'DJ 복심'

국회의원 박지원(68)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민주당 재선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탁월한 전략적 센스를 발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부상중이다.



지역현안 잘 챙기는 '쓴소리맨'

국회의원 이정현(52) 곡성 출신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보다 지역 현안을 더 잘 챙기고 여론을 겨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아 지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있다.



美·日서 수학한 '글로벌 맨'

전 청와대 비서관 정용화(46)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동경대 연구원등의 화려한 학력을 자랑한다. 지역 현안을 중앙 정부에 반영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있다.



이명박 정권 내각의 호남수장

법무부장관 이귀남(59) 장흥출신.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강력부장, 공안부장을 지내고 대검 공안부장 과 중수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중요부서를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권 내각의 호남 수장.



예산·세제 두루거친 농정전문가

농림부장관 장태평(62) 무안 출신으로 경제기획원과 재정부 등에서 예산·세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2008년 민주당의 국정감사 최우수장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는 농정 전문가.



여성인권 관련 명판결 다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선재성(47)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성인권과 관련한 명판결을 다수 남겼다.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 주도

감사원 감사위원 배국환(55) 강진이 고향이며, 전남 출신 최고중 중앙관료다. 기획·예산업무에 정통한 아이디어뱅크, MB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맡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사업을 주도했다.



문화전당 조기완공 진두지휘

문화도시추진단장 이병훈(53) 랜덤 크 논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 속에서도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을 목표로 진두지휘.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뛰고 있다.



금융·거시경제정책 전문가

기획재정부 1차관 임종룡(51) 보성 출신으로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까지 갖춘 정통 관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수립을 주도했다.



중앙·지방 두루거친 정통행정가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개호(51) 담양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정부 각 부처에도 많은 인맥이 포진해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엘리트로 기대되고있다.



대한민국 최고 포병 지휘관

육군 31사단장 모종화(54) 영암출신 육군소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포병지휘관. 목포고·육사(36기)를 졸업한 뒤 아전부대와 3군 화력부장 재직,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정밀타격 전문가로 꼽힌다.



순천 출신 대표적인 경비통

해양경찰청장 이길범(56) 간부후보로 경찰에 입문한 뒤 인천 부평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순천 출신의 대표적인 경비통.



호남경찰 엘리트 대표주자

경찰청 차장 모강민(53) 함평태생으로 호남경찰 엘리트의 대표주자. 서울 서부경찰서장, 울산경찰청 차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인천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독서량이 풍부한 정보기획통.



종교화합 이끈 불교계 대표주자

백양사 주지 시몽(63)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주지. 1965년 백양사에서 서운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2007년 6월까지 법화사 주지로 재직하다 백양사로 옮겼다. 시민을 위한 불교, 종교간 화합에 힘쓰고 있다.



목포 출신 첫 대학교장 임명

가톨릭 광주대학교장 김희중(63) 목포출신으로 1986년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 박사. 2009년 대학교에 서임됐으며 지역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광주대학교장에 임명됐다.



미국 물리학회 논문 심사위원

한국과기원 고등과학원 교수 이기명(51) 장흥출신으로 지난 3월 미국 물리학회가 세계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에게 주는 '최우수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美 의대 최연소 조교수 스카우트

美 베일러 의대 교수 이수경(34) 전남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미 베일러 의대 최연소 조교수로 스카우트 된 석학. 운동신경 전달물질 분야 등에서 왕성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 우주개발추진 핵심 멤버

나로우주센터장 민경주(57) 미 애크런 대학교에서 고분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활동,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여성인력 취업 매진

여성과학인 지원센터장 이영숙(62) 여수출신으로 전남대 간호학과 교수. 지난해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이공계 출신 여성인력들의 취업 경쟁력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있다.



4년째 실력 광주 이끈 진학팀장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김재근(56) 광주시의 4년째 대학 진학을 전국 1위를 이끈 시교육청 진학팀장. 학력향상 중점학교·선진 학력관리 체계·진학상담콜센터 운영 등으로 '실력광주'를 이끌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이끈 열혈 교장

광주일고 교장 김병채(60) 평준화 이후 참예 됐던 광주제일고에 2009년 취임한 뒤 몇 명문의 영광을 되살리고있는 열혈 교장.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모형을 이뤄내고 있다.



전문계 고교생 취업 100% 일궈

광주 전자공고교장 김성영(57) 학교기업 '카뷰티숍'을 운영해 교육과학기술부 표창을 받았다.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 1위 를 차지하는 등 전문계 고교 졸업생 취업 100%를 일궈내고있다.



구강암·임플란트 시술 권위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오희균(51) 악안면 성형과 구강암, 악관절 질환 및 임플란트 시술의 권위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퇴행 어깨관절 새 치료법 개발

조선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수 문영래(45) 줄기세포의 분화 원리를 적용해 퇴행 어깨 관절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예보 과학화 이끈 기상전문가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과장 김재호(59) 1972년 기상청에 입문해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 여수기상대장을 지냈다. 대기과학 전문가로 호남지역 예보 과학화를 이끌고 있다.



세익스피어학 연구 국내 권위자

호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강(45)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영미 희곡의 전문가. 지난해 영국 세익스피어학회 컨퍼런스 발표자로 선정된 세익스피어학 국내 권위자.



투명경영 유도하는 금융전문가

신협중앙회장 장태중(62) 함평 출신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지도·감독업무를 도맡아 금융기관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의 기틀을 다진 금융 전문가.



금융 공익 총괄하는 신진 엘리트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장 김준원 (46) 은행의 지역 공익사업을 총괄해 '우리금융인 대상'에서 광주은행 최초로 사회적 책임선도(Great Honor)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융엘리트.

희망을 펼치는 기분좋은 사빔,
새마을금고와 함께 준비하세요

한 권에서 한자 씩은 천문천 천구사백,
한 권의금으로, 희박한 부유를 열사기조는이다.

가업에 바치는 새마을금고 공익 캠페인
매년 · 작년 · 다음 · 공익(모임)

MG 새마을금고